

부하 걸린 불펜, '도미노 붕괴' 우려... '수호신'도 흔들

KIA 불펜 '마지막 보루' 정해영 30경기 34이닝 소화 '위험신호'

조상우 30.1이닝·전상현 33.2이닝, 기대이하 ERA... 필승조 무색 무더위·체력 고갈... 경기 후반 승부 돌발 변수, '9회까지 조마조마'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최근 과중한 등판 속에 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안정한 불펜 상황 속에서 마무리 투수에게 집중된 부담은 현재 팀 전력 운용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14일 현재 정해영은 올 시즌 평균자책점 2.91, 2승 3패, 16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총 147명의 타자를 상대하며, 피안타 38개, 홈런 3개, 사사구 12개, 삼진 41개를 남겼다. 성적만 놓고 보면 준수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등판 부하만큼은 팀 내에서 단연 가장 크다.

정해영은 올 시즌 30경기에 출전해 34이닝을 소화하며 총 478개의 공을 던졌다. 경기당 평균 15.9구를 기록했으며, 이닝과 투구 수 모두 KIA 불펜진 중 최다다.

보통 마무리 투수는 시즌 전체에서 60이닝 안팎을 소화하는데, 전반기 종료까지 아직 2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이미 절반을 넘어서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자신의 전반기 기록(32경기, 32이닝, 경기당 평균 13.5구)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크다.

주로 9회에 등판해 1이닝을 책임지는 역할이지만, 올 시즌 팀 전력이 흔들리면서 등판 빈도와 투구 소모가 함께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일 한화전에서는 시즌 세 번째 멀티이닝을 소화하며 개인 최다인 4구를 기록, 소모가 컸다.

이 같은 누적 피로는 최근 그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5경기 정해영의 피안타율은 0.455로, 마무리 투수 기준에서 안정적인 수치로 보긴 어렵다.

같은 기간 kt 박영현(0.375), 한화 김서현(0.444), 롯데 김원중(0.333) 등 주요 세이브 경쟁자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단순한 기량 저하라기보다, 반복된 중책과 투구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문제는 정해영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KIA 불펜의 핵심 축인 조상우(35경기 3

0.1이닝)와 전상현(38경기 33.2이닝)도 잦은 등판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이들 모두 평균자책점 4점대 안팎의 부진을 겪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필승조 전원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팀 불펜은 평균자책점 5.19로 리그 9위에 머물러 있고, 볼넷(129개)과 WHIP(1.65)은 리그 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펜 난조는 단순한 뒷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선발진의 짧은 이닝 소화가 불펜 부담을 키우고, 수비 실책과 타선 기복까지 겹치며 경기 후반 불안정성이 악순환되고 있다. 여기에 주축 타자들의 잇단 부상도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간접적인 요인이다. 결국 정해영의 과부하는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팀 전력 운용 전반의 불안정성이 불펜으로 고스란히 전이된 결과다. 지난 14일 NC전에서 9회말 허용한 만루 홈런은 단순한 불펜 난조가 아닌 누적된 피로와 운영 불안이 만들어낸 위기 상황의 표출이었다.

리그는 전반기 종료까지 약 4주, 그리고 더 긴 후반기가 앞두고 있다.

마무리 투수가 시즌 전반기에만 30이닝을 넘겼다는 사실은 분명 경고 신호다.

특히 후반기로 갈수록 무더위와 체력 저하, 장거리 원정 등 외적 변수까지 더해진다.

지금 같은 불안정한 운영이 반복된다면, 정해영은 물론 필승조 전반의 기량 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주홍철 기자



지난달 29일 카움과의 홈경기에서 10회말 마운드에 오른 정해영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는 양궁·대구는 육상' 국제스포츠 중심도시 맞손

현재를 잇다, 미래를 보다...2025 달빛동맹 스포츠교류 대회 달구벌서 성료

광주시체육회와 대구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광주-대구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지난 13일 대구에서 막을 내렸다.

광주시체육회는 15일 "광주는 이번 교류전에 배구, 검도, 족구, 볼링 등 4개 종목 120명의 선수 및 동호인이 참가해 대구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달빛교류를 더욱 돈독히 했다"고 밝혔다.

광주선수단은 지난 12일 대구스포츠타운센터에 도착해 대구시체육회가 마련한 환영식을 시작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을 탐방한 후 대구에서 준비한 환영만찬 행사에 함께했다.

이 행사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오는 9월에 열리는 2025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대구체육인들의 참여를 당부했고, 2026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와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 및 유치를 기원했다.

13일에는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린 스포츠교류 대회에 참가했다. 배구에서는 광주체육중(전문체육)과 광주여성부(생활체육)가 승리했고, 검도에서도 조선대(전문체육)와 광주훈



대구시 일원에서 열린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 환영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대구시체육회 등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성팀(생활체육)이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볼링에서는 남자일반부가 값진 승리를 따냈으나 여자일반부는 아쉽게 패했다. 족구는 어렵게도 대구에 패했다.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는 2013년 달빛 야구교류대회를 모태로 출발해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해를 제외하고 양 도시에서 격년제

로 이어지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와 대구는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지만, 체육 분야의 교류가 양 도시 화합을 더 강화하고 있다"며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후배 체육인들에게 이어져 지속 가능한 교류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전남체육인과 소통

대한체육회가 전남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5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025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남도체육회와 전남 22개 시군체육회장, 72개 종목단체장,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지도자, 스포츠클럽 관계자 등 200여명과 정책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회장은 이날 대한체육회의 주요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 지원성 확보를 통한 동반성장, 선수-지도자간 연계를 위한 '스포츠킷네트' 시스템 도입,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젝트, 생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글로벌 중심의 K-스포츠 육성 등 대한민국 체육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전남체육인들은 이 자리에서 공공스포츠를 활성화 대책,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맞는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전국소년체육대회 활성화 대책, 군비 100% 지역스포츠클럽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지원 방안 강구 등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장흥군 대한체육인재개발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비 확보 및 조속한 개원 등을 주문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살아나야 대한민국 체육이 더욱 발전한다"며 "열악한 현장의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의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청 근대5종 전용태 장애물 경기 첫 출전 우승

문체부장관기 남자일반부 1위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시청)가 '5종' 중 승마를 대체해 장애물 경기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공식 대회 5종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용태는 15일 해남 우송체육공원에서 열린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남자 일반부 5종 결승에서 펜싱과 수영, 장애물 경기,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천601점을 기록, 1위에 올랐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부 3위에 올라 한국 근대5종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긴 전용태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세부 종목에서 빠진 승마를 대신해 장애물 경기가 포함된 5종 경기엔 처음 출전해 정상에 올랐다.

파리에서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노렸으나 6위로 시상대에 서지 못한 전용태는 이후 국내 대회에서 장애물이 빠진 4종 경기에만 출전해 왔다.

장애물 경기가 적용된 지난해 11월 국가대표



남자 일반부 5종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전용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선발전엔 수술 일정으로 불참해 이번 시즌엔 국가대표에서도 빠져 있다. 장애물 경기가 포함된 5종 경기에 처음 출전한 전용태는 이번 대회 장애물 성적만으로는 17위에 자리했으나 펜싱과 레이저 런에서 전체 1위에 오르는 등 여전한 기량을 발휘하며 정상에 올랐다. 김경환(국군체육부대·1천545점)과 이주찬(경산시청·1천515점)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FC, '베테랑' 수비수 심상민 임대 영입

광주FC가 수비진에 경험을 더한다. 광주는 15일 "울산HDF에서 활약 중인 수비수 심상민(32·사진)을 임대로 영입해 풀백 뎀스의 깊이를 더했다"고 밝혔다.

연령별 대표팀을 차례대로 거친 심상민은 2014년 FC서울에 입단 이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8강 진출에 기여하며 핵심 멤버로 활약했다.

심상민은 빠른 발과 과감한 오버래핑이 장점으로 꼽히는 왼쪽 풀백으로 정확한 크로스 능력은 물론 롱쇼팅 능력까지 장착하며 다양한 루트를 제공할 수 있는 수비수다.

심상민의 영입은 기존 주전 풀백으로 활약하던 김진호의 부상 이탈을 메울 수 있는 자라는



편이며 조성권, 권성윤 등 젊은 풀백들의 멘토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상민은 "광주라는 좋은 팀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 광주의 축구를 습득하고 따라갈 생각에 설렌다"며 "팬분들께서 아시아 무대에 다시 참가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싶어 하실 것 같다. 광주가 다시 한번 더 아시아 무대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각오를 전했다. /박희중 기자